창간 제4호 ·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 발행 CONDERI(콘데리)

FIRSTPAGE

퍼스트페이지

내일의 창업가·경영자가 오늘 여는 첫 페이지

경제·금융 기초

젠슨 황 없는 첫 성적표, 코스피를 다시 5,000에 올려놨다

엔비디아 3분기 매출 1,158억 달러·전년비 103%…코스피 5,067.44, SK하이닉스 4.19%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19

엔비디아가 창업 이래 처음으로 창업자 없이 낸 분기 실적에서 시장 전망을 넘겼다. 발표 다음 날 코스피는 하루 만에 5,000선을 되찾았고, 원화 값도 함께 올랐다.

18일 오후 3시 30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8.96포인트(1.99%) 오른 5,067.44로 장을 마쳤다. 130.34포인트(2.62%) 오른 5,098.82로 출발한 지수는 개장 직후 5,133.14(+3.31%)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하며 한때 약세로 돌아섰고, 오후 들어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잡았다. 코스닥도 1.96% 오른 662.81로 마감했다.

하루 전인 17일 코스피는 2.59% 내린 4,968.48로 마감하며 지난 2월 이후 9개월여 만에 종가 기준 5,000선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 그 하루 만의 복귀다. 원·달러 환율도 5.2원 내린 1,333원(15시 30분 기준)으로 마감했다. 지수가 오르는 날 원화 값이 함께 오른, 최근 몇 달 사이 드문 조합이다.

실적은 6.2% 앞섰다

엔비디아가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마감 후 공시한 2027회계연도 3분기(2026년 8~10월) 매출은 1,158억 4,000만 달러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3% 늘었고 전분기보다는 20% 늘어 분기 기준 최고치를 다시 썼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1,091억 달러를 67억 4,000만 달러(6.2%) 웃도는 규모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2.68달러로 월가 추정치 2.47달러를 넘었다.

항목 · 2027회계연도 3분기 · 비교

매출 · 1,158억4,000만 달러 · 전년비 +103%, 전분기비 +20%

주당순이익(EPS) · 2.68 달러 · 시장 추정 2.47 달러

4분기 매출 전망 · 1,300억 달러 · 시장 예상 1,251억 달러

부품·생산능력 구매약정 · 3,900억 달러 · 전분기 2,790억 달러

자사주 매입 한도 · 1,500억 달러 · 기존 한도에서 확대

시장이 주목한 숫자는 매출보다 그다음 줄이었다. 엔비디아는 4분기(2026년 11월~2027년 1월) 매출 전망으로 1,300억 달러를 제시했다. 회사가 제시한 범위는 1,261억~1,330억 달러로, 시장 예상 1,251억 달러를 웃돈다. 2028회계연도 매출 증가율 전망도 직전 분기의 70%에서 75%로 올랐다. 이 전망에 3분기 기준 24억 달러가 포함된 중국 데이터센터 컴퓨팅 매출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회사는 밝혔다.

능력은 늘리고, 자금 지원은 줄이고

임시 최고경영자(CEO)인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컨퍼런스콜에서 두 가지를 함께 내놨다. 하나는 공급 확대다. 부품과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구매약정은 전분기 2,790억 달러에서 3,900억 달러로 1,110억 달러 늘었다. 회사는 이 증가분의 주된 이유로 다년간 메모리 장기 공급계약(LTA)을 꼽았다. 클라우드 서비스·데이터센터 임대 약정도 740억 달러에서 1,020억 달러로 확대됐다.

다른 하나는 자금 지원의 축소다. 크레스 CEO는 "시장이 성숙해지고 추가 자본 조달원이 확보됨에 따라 미래 투자와 약정, 보증을 더욱 엄격히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젠슨 황 전 CEO가 회사 현금흐름을 고객사에 다시 투자해 AI 생태계를 키운 이른바 순환금융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네오클라우드 가운데서도 전력과 토지, 건물을 확보한 곳을 우선 지원하고, 신용등급이 투기등급(BB) 이하인 곳은 실제 컴퓨팅 판매·임대 계약 여부를 따지겠다고 했다. 동시에 네오클라우드 지원을 위한 최대 320억 달러의 조건부 추가 약정과 오픈AI가 임차할 데이터센터에 대한 최대 1,050억 달러의 신용보증은 유지했다.

경영진 교체 이후 첫 분기

이번 실적은 11월 12일 젠슨 황 전 CEO가 사임하고 크레스 CFO가 임시 CEO를 맡은 뒤 나온 첫 성적표다. 황 전 CEO는 실적 발표 당일 "이사회가 요청한다면 경영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는 성명을 냈지만, 하비 존스 이사회 의장은 컨퍼런스콜에서 "젠슨 황을 CEO로 재선임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크레스 CEO는 삼성전기와 반도체 기판 분야의 새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업 관점에서 보면 회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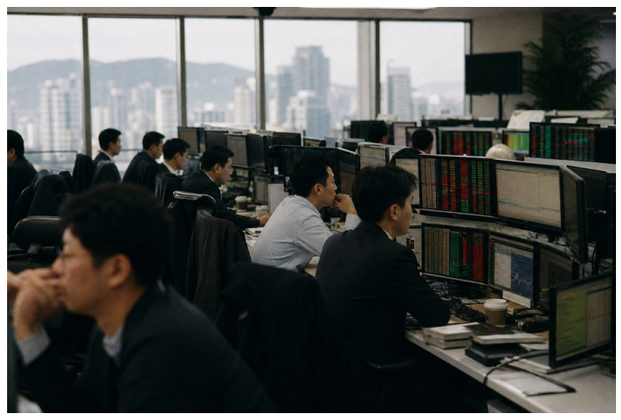
국내 반도체주도 함께 움직였다. 18일 삼성전자는 2.31%, SK하이닉스는 4.19% 오른 채 정규장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 5~6%대 급등했다가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한 흐름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확보와 AI 생태계 지원을 지속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이는 메모리, AI 인프라 기업에 긍정적이지만 고객사의 자금조달 위험을 엔비디아가 함께 부담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안도와 반전은 다른 말

증권가의 평가는 '안도'와 '추세 반전'을 구분한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 실적은 안도 요인이지만, 추세 반전은 별개의 문제"라며 "확실한 투심 반전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 실적만으로 자금조달, 데이터센터 규제, 수요 변화 등 AI 불확실성이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어도, 황 전 CEO의 사임 이후 확산된 엔비디아발 리스크를 일정 부분 덜어준 것은 맞다"고 말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 하락폭은 과도하다"며 "200일선과의 괴리가 2000년대 이후 네 번째로 많이 벌어졌고, 200일 코스피 평균은 6,630선"이라고 짚었다.

다음 변수는 19일 밤(한국시간)으로 예정된 앤트로픽의 나스닥 상장이다. 공모가가 주당 83달러로 확정되면서 AI 기업의 상장 시장 자금 조달 통로가 열리는지가 이번 주 남은 관건으로 꼽힌다. 국내 증시는 19일 수능일 시간표에 따라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코스피는 1.99% 오른 5,067.44로 마감했다.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세 줄 요약

1. 엔비디아 2027회계연도 3분기 매출은 1,158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3% 늘어 시장 전망치(1,091억 달러)를 67억4,000만 달러 웃돌았다.
2. 이에 18일 코스피는 1.99% 오른 5,067.44, 코스닥은 1.96% 오른 662.81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5.2원 내린 1,333원을 기록했다.
3. 4분기 매출 전망은 1,300억 달러, 2028회계연도 성장률 전망은 70%에서 75%로 높아졌고 부품 구매약정은 3,900억 달러로 늘었다.

용어 한눈에 보기

주당순이익(EPS) —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값. 주가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구매약정 — 앞으로 물건을 사겠다고 미리 약속한 금액. 반도체 기업에는 장기 공급 물량의 예고편 역할을 한다.

순환금융 — 칩 공급 기업이 고객사에 투자하고 그 고객사가 다시 자기 제품을 사는 구조. 호황기에는 성장을 키우고 불황기에는 위험을 키운다.

"130.34포인트(2.62%) 오른 5,098.82로 출발한 지수는 개장 직후 5,133.14(+3.31%)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하며 한때 약세로 돌아섰고, 오후 들어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잡았다."

—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앤트로픽, 주당 83달러로 공모가 확정…19일 밤 'ANT'로 나스닥 문을 두드린다

당초 70~78달러 상회…3분기 매출 170억 달러, 개인투자자에 물량 20% 배정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19

설립 5년 만의 상장이다.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을 넘어서면서, AI 기업의 기업가치를 시장이 직접 매기는 첫 대형 시험이 시작된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19일(현지시간) 나스닥에서 종목코드 'ANT'로 거래를 시작한다. 2021년 설립 이후 5년 만의 상장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 앤트로픽이 공모가를 주당 83달러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10일 수정 증권신고서에서 제시한 희망 범위 70~78달러를 넘어선 가격이다.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밤에 첫 거래가 이뤄진다.

상단을 넘어 83달러

당초 시장의 예상은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앤트로픽이 공모가를 80달러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투자설명회 첫날인 10일 공모 물량의 약 두 배였던 기관 주문은 12일 마감 기준 약 여섯 배로 늘었다. 최종 확정가는 그 기대보다 3달러 더 높은 83달러다.

구분 · 내용

공모 물량 · 8억2,500만주 (주당 70~78달러 제시)

사모 사전 배정 · 7개사 260억 달러 규모 N주

총조달액 · 최대 904억 달러(약 121조2,000억 원)

완전희석 기업가치 · 희망 범위 상단 78달러 기준 약 1조4,000억 달러

개인투자자 배정 · 공모 물량의 약 20%

상장일·종목코드 · 11월 19일(현지)·나스닥 'ANT'

희망 범위 상단인 78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한 완전희석 기업가치는 약 1조4,050억 달러(약 1,876조 원)였다. 83달러로 확정되면 이보다 높아진다. 5월 시리즈 H 투자 유치 때 회사가 밝힌 기업가치는 9,650억 달러였고, 한때 거론되던 2조 달러에는 미치지 못한다.

매출은 12배, 영업은 다시 적자

회사의 성장 속도는 상장 전부터 기록적이었다. 수정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매출은 170억 달러로 전년 동기의 12배였다. 9월 30일까지 9개월 누적 매출은 332억4,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200% 늘었다. 2025년 한 해 매출이 25억 달러, 2023년이 4,100만 달러였던 회사다. 10월 말 기준 연환산 매출(run-rate)은 약 810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00억 달러 늘었다.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쓰는 고객은 2025년 12월 약 1,500곳에서 9월 30일 1만1,900곳으로 늘었다.

반대편 숫자도 함께 공시됐다. 3분기 영업손실은 5억6,700만 달러로, 2분기 영업이익 9억7,400만 달러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9개월 누적 순손실은 1,040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회사는 그 대부분이 전환사채와 파생상품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같은 기간 순손실은 251억 달러였다.

7개사가 먼저 주주가 됐다

공모와 별도로 칩·클라우드 공급망 기업 7곳이 공모가와 같은 가격에 무의결권 N주를 사들이는 사전 배정 계약을 맺었다. 규모는 총 260억 달러다. 구글과 엔비디아가 각각 약 100억 달러, AMD가 약 25억 달러,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약 10억 달러, TSMC가 자회사를 통해 약 5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 주식은 공모 물량이 아니어서 보호예수(록업) 약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메모리 업체 가운데는 마이크론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월 시리즈 H에 전략적 인프라 파트너로 참여했지만 이번 사전 배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계약서에 남은 두 개의 위험

신고서에는 고속 성장의 그늘도 적혀 있다. 앤트로픽은 클라우드 업체 람다와 총 413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계약을 맺었는데, 이 가운데 349억 달러(약 46조8,000억 원) 규모의 8월 계약은 람다가 기한 내 데이터센터 시설 임대를 확보하지 못해 양측이 모두 해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회사는 "현재로선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컴퓨팅·인프라 약정 총액은 약 9,000억 달러(약 1,206조 원)에 이른다.

상장 전 선물시장은 97달러를 가리켰다

주식이 없이도 상장 후 주가에 베팅하는 무기한 선물시장은 더 높은 값을 먼저 매겼다. 18일 아시아 시장에서 앤트로픽 연동 무기한 선물은 약 97달러에 거래됐다. 희망 범위 상단 78달러보다 약 24% 높은 수준으로, 이를 기업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7,000억 달러다. 다만 이 선물가격은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4일 이후 최대 21% 떨어졌다. 미결제약정은 4억2,200만 달러로, 6월 스페이스X가 상장 이틀 전 기록한 2억5,100만 달러보다 약 68% 많다.

거래 플랫폼 탈로스의 켈리 예 리서치 책임자는 "무기한 선물시장은 여전히 상장 후 주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지만 일주일 전보다 기대 상승폭은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스페이스X는 상장 당일 선물가격이 약 176달러까지 올랐지만 실제 주가는 공모가 135달러보다 높은 150달러에 거래를 시작했다. 같은 책임자는 "상장 전 무기한 선물은 미래를 정확히 보여주는 수정구슬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단신

지금 알아야 할 짧은 소식

테크·AI 트렌드

와이파이 끄고 'AI 흔적' 색출, 과기부·NIA·이통3사, 수능 부정행위 차단 '합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성숙(왼쪽) 국무총리의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제·금융 기초

롯데百 매출 90% 따라잡은 신세계, 업계 1위 '맹추격'

매출액 기준 국내 백화점업계 2위인 신세계백화점이 업계 1위 롯데백화점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경제·금융 기초

"반도체, 내년 더 좋아", 경제성장률 대폭 상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 호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2027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대폭 높였다.

광고

CONDERI

청소년 창업교육 · SkillBridge

학교와 기업을 잇는 진로·창업 프로그램

www.conderi.com

contact@conderi.com

경영·전략

13회째 '재도전의 날', 실패한 창업가와 투자자가 같은 홀에 선다

19일 세텍, 500여 명…추경 600억 원 확보, 결선 무대와 '리버스 IR'까지

조경용 기자

경영·전략 · 2026.11.19

재창업 기업이 투자자를 만나는 자리가 19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다. 올해는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600억 원이 처음 집행되는 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제2전시장에서 '2026 재도전의 날'을 개최한다. 2011년 시작해 올해 13회째다. 재창업 기업인과 예비 창업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행사는 실패담과 투자 유치를 한자리에 놓는다. 오전에는 박현호 크몽 대표가 여러 차례 창업 실패를 겪은 뒤 재능 거래 플랫폼을 세운 경험을 공유한다. 최화준 전남대 교수는 해외 재도전 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이어 재창업 기업인과 학계·법률·투자 전문가가 제도 개선 과제를 토론한다. 오후에는 전국 예선을 통과한 재창업 기업인들이 투자유치대회 결선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 재도전 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털(VC)이 투자 전략을 설명하는 '리버스 IR'도 같은 시간에 열린다.

행사장에는 재창업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전시, 정책·법률·세무·투자 분야 전문가와의 1대1 상담이 함께 마련된다.

4월 추경에서 600억 원

올해 행사의 배경에는 예산이 있다. 중기부는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창업 기업의 사업화와 융자 지원에 필요한 6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재도전 정책 발굴과 인식 개선을 맡는 민관 협력체 '재도전 응원본부'를 출범시켰고, 재창업자금 지원 한도도 넓혔다.

시상도 함께 이뤄진다. 재도전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대표 8명과 지원기관 직원 4명, 우수 사례 공모전 입상자 5명 등 17명에게 중기부 장관상 13점과 지원기관장상 4점이 수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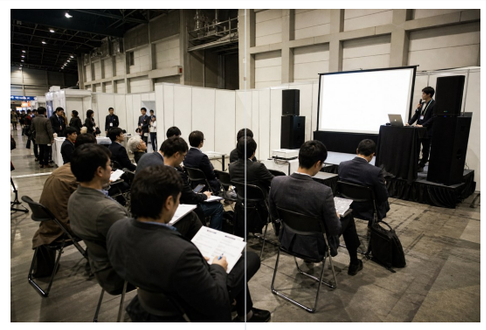
이순배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실패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실패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창업은 인정 기준의 문제이기도 하다

재도전 정책에서 기업들이 가장 자주 지적하는 것은 돈보다 자격이다. 중기부가 지난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올린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는 이 지점을 다루는 과제가 들어 있다. 병역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이 생겨도 창업기업 업력 산정에 예외가 없어,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최대 5년을 더해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업력 3년 미만 초기 기업은 정부 R&D 사업 신청 때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사전 제한이 아닌 선정평가의 심사 기준으로 바꾼다.

창업 경험을 재도전의 자산으로 쌓는 제도도 손본다. 성실경영평가를 재창업 특례와 연결한 '재도전 창구'로 다시 설계하고, 법인 대표자와 창업 준비 경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가칭 '도전·창업경력서' 발급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로 열거나 법인 임원이 단독으로 지분 50%를 넘는 법인을 세우는 경우도 창업지원 대상에 넣는 방안이 함께 담겼다.

구분 · 내용



19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리는 '2026 재도전의 날'에는 재창업 기업인과 투자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행사 · 2026 재도전의 날 (13회)

일시·장소 · 11월 19일, 서울 강남구 세텍 제2전시장

참석 · 재창업 기업인·예비 창업자·투자자 등 500여 명

예산 · 4월 추경으로 재창업 사업화·융자 600억 원 추가

시상 · 17명 (장관상 13점, 지원기관장상 4점)

실패를 자산으로 부르는 방식

국내 창업 생태계에서 재창업은 여전히 좁은 문이다. 은행 거래 한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이력, 신용 정보가 이전 회사의 이력과 함께 따라붙는 구조가 남아 있어서다.

중기부가 이번 행사에서 내건 '실패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으로'라는 문구는 그래서 정책 언어이자 시장의 과제다.

투자자 입장에서 재창업 기업은 검증된 이력과 남은 부채를 함께 가진 대상이다. 투자유치대회 결선에 오른 기업들이 어떤 조건으로 자금을 받는지, 재도전 펀드가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고르는지는 19일 오후 무대에서 드러난다.

창업 스토리

중기부, 민간기업과 5년간 2조원 조성, 中企 스마트공장 지원

대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 제조 현장에서 축적한 AI 기술과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조경용 기자

창업 스토리 · 2026.11.18

우선 중기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민간기업과 함께 총 2조원을 조성해 2천개 이상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 제조 현장에서 축적한 AI 기술과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를 활용한 제조혁신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개방형 혁신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제조 AI 관련 기술 수요와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연결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협업과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2031년까지 개방형 혁신 주관기관 참여 규모를 100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AI 대전환의 혜택이 일부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제조 현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AI 활용 역량과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대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중소기업 현장에 연결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이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지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

중기부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 11곳,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5곳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중소제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이 보유한 AI 기술과 제조혁신 역량을 중소제조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체결기관들은 개방형 혁신과 상생형 스마트공장, 동반사업전환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동반사업전환 분야에서는 대기업이 AI 관련 신사업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 중소기업에 기술과 인프라 등을 제공해 함께 사업을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사업전환 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협약식 외에도 19일까지 진행되는 중소기업 혁신주간과 연계해 스마트제조 혁신 분야 6개 행사를 개최, 제조AI 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테크·AI 트렌드

패스트파이브, AI·보안 등 스타트업 8개사 선정, 최대 6개월 사무공간 지원한다

패스트파이브가 초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 베이스캠프 2기'에 참여할 기업 8개사를 선정했다.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18

공유오피스 기업 패스트파이브가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와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초기 스타트업 8개사를 선정하고 공간과 사업 인프라를 지원한다.

AI 영상 마케팅, F&B SaaS, AI 에이전트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선정됐으며, 초기 3개월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위더스퀘어는 자체 AI 알고리즘을 통해 화질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영상 데이터 용량을 최대 90%까지 줄이는 실시간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패스트파이브(대표 김대일·신정우)가 초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 베이스캠프 2기'의 입주 기업 8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2기에는 AI 기반 서비스와 산업별 소프트웨어, 보안 기술 등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참여했다.

김대일 패스트파이브 대표

김대일 패스트파이브 대표는 "1기에 참여한 9개 기업이 모두 스텝업 단계로 이어가며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초기 창업 기업에게 안정적인 업무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며 "선정된 2기 스타트업들이 기술 개발과 시장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오피스 운영 역량과 비즈니스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초기 3개월인 '베이스캠프' 단계에서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지원한다.

패스트파이브에 따르면 9개사 모두 초기 3개월 지원을 마친 뒤 후속 프로그램인 창업 스텝업 단계로 진입해 사무공간 이용을 이어가고 있다. 선정 기업들은 강남과 합정, 서울숲 등 패스트파이브 지점에 입주해 지점별 매니저의 지원을 받는다. 이 밖에 시니어 홈셰어링 서비스 홈투게더, 가치관 기반 매칭 서비스 쉘위, AI 에이전트의 접근 권한과 작업을 통제하는 보안 플랫폼 야몽시큐리티, AI 기반 애플리케이션 보안 기업 퍼스픽이 선정됐다.

패스트파이브 창업 베이스캠프 2기 온보딩 현장 창업 베이스캠프는 패스트파이브가 보유한 사무공간과 업무 인프라를 활용해 초기 기업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민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단신

테크·AI 트렌드

코딧, 신보 '퍼스트펭귄' 선정, 10억 건 정책 데이터 기반 규제 AI 고도화한다

10억 건 이상의 법·규제·정책 관련 데이터를 자체 AI 기술과 결합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광고

CONDERI EDU

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의

contact@conderi.com

FIRSTPAGE 지면 광고 문의 · contact@conderi.com

경제·테크

돈의 흐름과 도구의 변화

3면

테크·AI 트렌드

반도체 '나홀로 호황', 내수·중기 "수출 1兆달러 체감 못해"

반도체 초호황으로 수출 1조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져 나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18

이렇게 반도체가 '나 홀로 호황' 을 보이면서 내수 업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수출 1조달러를 체감하기 어렵다" 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수출 1조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져 나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수출 1조달러 돌파는 반도체 초호황 덕분이다.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9배 넘게 늘면서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2%를 넘기고 있다. 이 관계자는 "반도체가 실리는 미주 노선은 부산신항에 많다"면서 "인천신항에서는 수출 1조달러 달성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정관 장관

김정관 장관도 지난 17일 인 들과 만나 "AI 투자가 조정되면 반도체 수출 수요도 영향을 받는다"면서 "반도체 이외 다른 품목 수출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른 산업에도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사상 연간 수출 달성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관이 '우리 수출의 최전선'을 찾았다"고 산업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반도체 산업은 높은 자본 집약도로 취업 유발 효과가 작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다"면서 "반도체 호황이 고용과 소득으로 환류되는 경로가 약하다"고 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수출 급증이 중소·중견 협력사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도 크지 않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을 앞둔 17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항만·물류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제·금융 기초

스마트폰 D램까지 AI 서버로, "내년 HBM 평균가·첨단 패키징 매출 2배 이상 뛴다"

트렌드포스는 자체 AI 반도체인 텐서처리장치(TPU) 사용을 확대하는 구글의 HBM 수요 비중이 올해 22%에서 내년 31%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18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들이 AI 연산 칩과 HBM 등을 한데 묶는 첨단 패키징 사업에서 올리는 매출도 11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트렌드포스는 공급이 빠듯한 가운데 6세대 제품인 HBM4의 가격과 출하 비중이 함께 높아져 HBM 전체 평균판매가격(ASP)이 올해 기가비트(Gb)당 1.67달러(약 2235원)에서 내년 3.70달러(약 4951원)로 122% 상승할 것으로 봤다.

HBM 전체 출하량에서 HBM4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1%에서 내년 5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트렌드포스는 엔비디아 AI 서버에 사용되는 저전력 D램 수요가 2025~2030년 연평균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렌드포스는 내년 세계 서버 출하량이 올해보다 21% 증가하는 반면 스마트폰 생산량은 7.8%, 노트북 출하량은 10.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왕 애널리스트는 "과거에는 새로운 HBM 세대가 나오면 기존 제품 공급이 빠르게 줄었다"며 "내년에는 HBM4가 주력이 되지만 HBM3E도 상당한 물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렌드포스

구분 · %
올해 · 22.0
내년 · 31.0

트렌드포스는 자체 AI 반도체인 텐서처리장치(TPU) 사용을 확대하는 구글의 HBM 수요 비중이 올해 22%에서 내년 31%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트렌드포스는 내년 세계 파운드리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30.8% 증가한 2943억9400만달러(약 393조96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첨단 패키징 매출은 1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18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로드쇼 코리아 2026'을 열고 내년 AI 수요가 반도체 생산과 메모리 수급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애널리스트

왕 애널리스트는 "메모리 공급사들과 논의해 봐도 2027년에는 수요가 강하고 공급이 빠듯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내년 메모리 가격 전망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금융 기초

'한중 FTA 서비스 협상' 실질 타결, 中 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교감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의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18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후 서면 브리핑에서 두 정상 간 양자회담이 친근하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약 34분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의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이 대통령의 요청에 시 주석은 북미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8년 8개월간 협상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콘텐츠·관광 등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견인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선전 회담은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와 올해 1월 중국 베이징에 이어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다.

아울러 대통령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한중 간 인적교류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6년 기록됐던 1300만명이 복원되도록 출입국 편리화 조치를 지속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협상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4년 한중 상품 교역액은 2729억달러(약 364조원)였으나 서비스교역액은 388억달러(약 52조원)에 그쳤다. 양국은 2015년 발효한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후속협상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열리는 미중러 3자 정상회담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한반도 문제가 한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며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

경제·금융 기초

"금붕어냐" 면박, 아빠같은 성격, 엔비디아 실세 매디슨 누구

푸리는 지난 2월 매디슨 황에게 질책을 당하고 8월 기존 직책에서 물러났다.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18

엔비디아에서 수십년을 근무한 임원들을 상대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 매디슨 황의 엔비디아 재직 기간은 6년이다.

NYT 취재에 따르면 매디슨 황은 부친의 오랜 측근이자 회사 2인자로 불린 제이 푸리, 엔비디아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소프트웨어 쿠다(CUDA) 개발자 이안 벅 부사장에게 행사 준비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키맨] 매디슨 황 엔비디아 수석이사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의 불륜이 증시와 경제를 좌우하는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젠슨 황 일가의 사내 행태에도 관심이 쏠린다. WSJ는 매디슨 황이 부친 젠슨 황처럼 임직원들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푸리는 지난 2월 매디슨 황에게 질책을 당하고 8월 기존 직책에서 물러났다.

일부 직원들

일부 직원들이 인사팀에 매디슨 황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으며 뉴욕타임스(NYT)는 매디슨 황이 이 때문에 수개월 간 직원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일부 직원들은 최근 3년 간 핵심 임원 10명 이상이 매디슨 황 때문에 회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JS) 등 보도에 따르면 매디슨 황과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익명 관계자는 매디슨 황을 비롯한 젠슨 황 가족들이 사내에서 왕족처럼 여겨졌다고 말했다.

WSJ는 엔비디아 전직 고위 임원의 발언을 인용, "두 사람은 다른 임원들이 금시초문인 정보를 알고 있었다"며 "(회의에서) 젠슨 황의 결정이라며 말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6세인 매디슨 황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르 코르동 블루 등 교육기관에서 요리를 공부했다.

2025년부터는 수석이사로 근무하며 엔비디아 물리 AI 플랫폼 마케팅을 총괄 중이다.

단신

경제·금융 기초

중국 '한한령' 해제, "K기업, 중국 내 매장 운영하고 여행객 모집 가능"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협정에 반했다.

테크·AI 트렌드

AMD, 월드랩스 이어 추론 반도체 기업 탈라스 인수, AI 모델·칩 개발 역량 확대

AMD는 AI 추론 특화 반도체 기업 탈라스(Taalas) 인수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광고

FIRSTPAGE 지면 광고

청소년이 실제로 읽는 지면에 브랜드를 싣습니다 · contact@conderi.com

firstpage.conderi.com

경제·금융 기초

200억 벌고 회사는 4억?, 이정재 측 “최대주주 특혜 아냐, 사실관계 왜곡 법적대응” [공식입장]

당초 이정재 배우 측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MG를 받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였으나, 무상으로 권리를 제공하는 데 따른 세무상 문제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하였다.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18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가 정산 특혜 의혹에 반박했다.

이정재 배우와 함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동료 배우 역시 별도의 임원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두 배우에게는 동일한 조건의 정산계약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수 사무실 운영과 그에 따른 비용은 이정재 배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주식양수도계약상 사임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이러한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주주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면서 ”수익배분 상한은 이정재 배우만의 특혜가 아니다. 수익배분 상한은 이정재 배우만의 특혜가 아닙니다 기사는 이정재 배우의 정산계약에 수익배분 상한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마치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 “특히 아티스트컴퍼니는 수익 배분 상한선이 없었다면 소속사가 16억 원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었다는 계산에 대해서도 “이는 정산계약에서 상한 조항만 제거하고 나머지 계약조건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계산”이라며 “이정재 배우가 소속 배우 중 회사의 매출과 수익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한 조항만으로 이를 특혜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티스트컴퍼니 측

18일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디스패치의 취재 요청에 대해 배우 정산계약의 구조, 본점 이전 경위, 임대료 산정 근거, 베나뷰티 계약의 경제적 실질, 기타 투자 및 사업 재편의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나 해당 기사는 일부 해명을 형식적으로 인용하였을 뿐, 해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비교사실과 객관적 근거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은 채 이정재 배우 개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이 집중되도록 작성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베나뷰티 계약은 회사의 수익성을 우선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기사는 베나뷰티와의 계약을 회사의 이익을 이정재 배우 개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거래처럼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정재 배우는 오랜 기간 화장품 브랜드와 제품 개발을 준비하며 베나뷰티를 설립하고 관련 개발비를 직접 부담하였다.



동전 몇 닢이 남은 유리병과 낡은 지갑. 현금이 마르는 날은 계산할 수 있다. (자료사진)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당초 이정재 배우 측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MG를 받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였으나, 무상으로 권리를 제공하는 데 따른 세무상 문제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하였다.

테크·AI 트렌드

와탭랩스, ‘2026 GIX 어워즈’ SaaS 부문 대상, 1200개 고객사 확보한 모니터링 기술 인정

와탭랩스가 '2026 글로벌 인텔리전트 SW 어워즈'에서 SaaS 부문 대상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18

와탭랩스는 국내외 1200여 개 고객사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42개 고객사를 확보했다.

와탭랩스(대표 이동인)가 통합 IT 모니터링 솔루션 ‘성능관리클라우드서비스(SaaS)’가 ‘2026 글로벌 인텔리전트 SW 어워즈(GIX 어워즈)’에서 SaaS 부문 대상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GIX 2026(Global Intelligent SW eXpo 2026)’에서 진행됐다. 2021년 SaaS 모니터링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획득했으며, 2025년 12월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스마트프렌(Smartfren), 나고야은행(Nagoya Bank) 등을 포함해 해외 고객사 42곳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아세안과 북미 시장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 “이동인 와탭랩스 대표는 “이번 수상은 고객의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 함께하며 축적한 통합 모니터링 기술력과 시장 기여도를 인정받은 성과”라며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국산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의 안정적인 IT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와탭랩스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기존 외산 모니터링 솔루션을 와탭으로 전환한 이후 약 1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장애 대응 시간을 50% 이상 줄였다.

와탭랩스는 2025년 가트너의 ‘인프라 모니터링 도구 마켓 가이드’에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대표 기업으로 선정됐다. 국내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통합 모니터링 시장을 개척해 온 와탭랩스가 기술 경쟁력과 산업 기여도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수상했다. GIX 어워즈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시상 프로그램이다.



벤처스퀘어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벤처스퀘어

와탭랩스는 국내 최초로 SaaS 기반 통합 모니터링 서비스를 상용화한 이후 고객의 인프라 환경에 따라 퍼블릭 SaaS, 프라이빗 SaaS, 온프레미스 등 다양한 구축 방식을 제공해 왔다.

테크·AI 트렌드

브로즈, 디지털 혁신 유공 부총리 표창·LBS 스타트업 챌린지 대상 잇따라 수상

이어 ‘2026 KOREA LBS 스타트업 챌린지’ 사업화 분야 생활밀착형 부문에서도 대상을 받아 상금 2,000만원을 확보했다.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18

브로즈는 AI 디지털트윈 솔루션 ‘FAVIEW’ 를 통해 800곳 이상의 공간에서 기술 검증과 서비스 적용을 진행했다.

‘2026 KOREA LBS 스타트업 챌린지’ 사업화 분야 생활밀착형 부문에서도 대상을 받아 상금 2,000만원을 확보했다.

브로즈는 지난 13일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및 2026 대한민국 Digital Innovation Award’ 시상식에서 ICT 혁신 유공 부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단체)을 받았다. 이어 18일에는 ‘2026 KOREA LBS 스타트업 챌린지’ 사업화 분야 생활밀착형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기술 개발과 사업화 성과를 이어갔다.

브로즈는 18일 열린 ‘2026 KOREA LBS 스타트업 챌린지’에서 사업화 분야 생활밀착형 부문 대상을 수상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상과 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공간 인공지능(AI) 기술 기업

공간 인공지능(AI) 기술 기업 브로즈(BROZ)가 디지털 혁신 분야 정부 표창과 위치정보 기반 스타트업 경진대회 대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이후 적용 공간이 800곳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기업 대상 프로젝트 구축과 소상공인 대상 형 서비스, 공공기관 대상 콘텐츠 구축 등으로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고 있다.

김승윤 브로즈 대표

김승윤 브로즈 대표는 “현실 공간을 누구나 쉽게 디지털화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해 온 팀원들과 현장에서 함께 검증해 주신 협력기관 덕분에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FAVIEW의 공간 이해·안내 기능을 고도화하고, 관광·공공·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공간 AI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만으로 현실 공간을 3차원 디지털 환경에 구현하고, AI가 공간의 구조와 정보를 이해해 안내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 핵심이다. 회사 IR 자료에 따르면 브로즈의 매출은 2023년 4,100만원에서 2025년 1억8,300만원으로 약 4.5배 증가했다.



벤처스퀘어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벤처스퀘어

브로즈의 주력 서비스인 ‘FAVIEW(파뷰)’는 스마트폰이나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와 영상을 3차원 공간 데이터로 전환하는 AI 디지털트윈 솔루션이다.

광고
CONDERI EDU
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의
contact@conderi.com

FIRSTPAGE 지면 광고 문의 · contact@conderi.com

청소년 기업가

수능일 아침, 증시는 10시에 문을 연다

코스피·코스닥 10:00~16:30, 은행 창구 10:00~17:00…환율 시장만 24시간 그대로

조경용 기자

청소년 기업가 · 2026.11.19

202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9일, 주식시장과 은행 영업시간이 한 시간씩 늦게 시작된다. 7월부터 24시간 체제로 바뀐 원·달러 시장만 예외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9일, 국내 증시는 평소보다 한 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문을 연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정규시장 거래시간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임시 변경했다. 수능일 수험생과 학부모의 출근·등교 시간을 고려한 조치로, 근거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4조다.

한 시간씩 밀린 시간표

거래 시작과 종료 시점이 모두 한 시간씩 밀린다.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오전 9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 장 종료 후 시간외 종가매매는 오후 4시 40분부터 5시까지다. 한국거래소의 애프터마켓은 오후 5시에 시작해 평소처럼 오후 8시에 끝난다. 이 시간에는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상장형 수익증권이 거래 대상에서 빠진다.

구분 · 평소 · 11월 19일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정규장 · 09:00~15:30 · 10:00~16:30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 · 08:30~08:40 · 09:30~09:40

장 종료 후 시간외 종가 · 15:40~16:00 · 16:40~17:00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 08:00~08:50 · 운영하지 않음

넥스트레이드 메인마켓 · 09:00:30~15:20 · 10:00:30~16:20

코스피200 선물·옵션 · 08:45~15:45 · 09:45~16:45

미국달러·금 선물 · 08:45~15:45 · 09:45~15:45

은행 영업점 · 09:00~16:00 · 10:00~17:00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도 시간표를 맞춰 늦춘다. 평소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운영하는 프리마켓은 이날 하루 열지 않는다. 메인마켓은 오전 10시 0분 30초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종가매매는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이뤄진다. 애프터마켓 거래는 평소보다 한 시간 늦은 오후 4시 40분에 시작해 오후 8시에 마감한다.

파생상품시장도 한 시간 순연된다. 코스피200선물·옵션과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KRX300선물, 국채선물 등 주식·금리 상품은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다. 미국달러·엔·유로·위안 선물과 금 선물 같은 통화·일반상품은 오전 9시 45분에 시작해 평소와 같은 오후 3시 45분에 끝난다. 야간시장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 시간 늦게 열린다.

은행은 10시, 환율 시장은 그대로

은행연합회는 11월 16일 전국 은행 영업점을 19일 하루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항과 산업단지, 시장 안에 있는 점포처럼 별도 시간을 쓰는 곳은 예외일 수 있다.

원·달러 환율 시장은 예년과 다르다. 지난해 수능일에는 외환시장 개장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졌지만, 올해는 그런 조정이 없다. 지난 7월 6일부터 서울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가 주말과 1월 1일만 쉬는 24시간 체제로 바뀌면서 매일 여닫는 시각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엔·유로 같은 다른 통화는 기존 주간시장 체제를 유지한다. 증권사 앱의 환전 가능 시간은 회사별로 다르므로, 해외주식 자동매수를 걸어둔 경우에는 각 증권사의 이날 공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남는다.

수능일 코스피, 11번 중 7번 올랐다

'수능날 장은 약하다'는 말이 자주 인용된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번의 수능일 코스피를 전 거래일과 비교하면 상승이 7번, 하락이 4번이었다. 단순 평균은 +0.09%다. 가장 크게 오른 해는 2018년(+0.97%), 가장 크게 내린 해는 2022년(-1.39%)이었다. 2017년은 포항 지진으로 시험이 11월 23일로 밀렸고, 2020년은 코로나19로 12월 3일에 치러졌다. 시험일 자체가 옮겨간 두 해를 빼면 표본은 더 줄어든다.

올해 수능일 증시에는 시험 외 변수도 겹쳐 있다. 전날 코스피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힘입어 1.99% 오르며 5,000선을 되찾았고, 19일 밤(한국시간)에는 앤트로픽의 나스닥 상장이 예정돼 있다. 개장 시간이 한 시간 늦춰진 만큼 아침 시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19일 수능일에는 코스피·코스닥 정규장이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광고

FIRSTPAGE 지면 광고

청소년이 실제로 읽는 지면에 브랜드를 싣습니다 · contact@conderi.com

firstpage.conderi.com

테크·AI

도구가 바꾸는 일의 방식

테크·AI 트렌드

무뇨스 "현대차는 피지컬AI 기업, 아틀라스 로봇 훈련인력 채용중"

美서배너 공장에 아틀라스 훈련센터 "인간 일자리 대체 아닌 새 고용창출" 엔비디아와GPU 자율주행 협력 지속현대자동차가 로봇을 훈련하고 관리할 새로운 인력 채용에 팔을 걷어붙였다.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19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서 열린 '세마포 실리콘밸리 앤드 더 월드'에 참석해 "지금 로봇을 훈련할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 로봇을 정비할 인력도 더 필요해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이 서배너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훈련센터를 열고 생산공정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대목이다. 무뇨스 사장은 현대차그룹을 '피지컬 AI 기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2년 전만 해도 왜 로봇에 투자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질문이 줄었다"며 "우리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뇨스 사장은 자동차 사업을 기반으로 로봇과 자율주행 등 신사업에 계속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그러면서 무뇨스 사장은 "로봇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 사람의 능력을 보완하고 생산 효율과 품질을 높여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BD)도 산업 현장에 2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와 4족 보행 로봇 스팟 적용 확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무뇨스 사장

무뇨스 사장은 "이달 웨이모에 차량을 인도할 예정"이라며 "미국뿐 아니라 우(右)핸들 시장에도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9일(현지시간)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발 대신 휠을 장착하고 다양한 고난도 동작을 수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BD는 17일(현지시간) 글로벌 반도체 제조기업 글로벌파운드리와 로봇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고 18일밝혔다.



매일경제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매일경제

현대자동차가 아틀라스 훈련인력 채용에 나서며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공정 투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테크·AI 트렌드

SK온 대만 1.2GWh ESS 수주전 뛰어든다, 12월 입찰

미국 에너지 기업 GE버노바(GE Vernova)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19

SK온이 오는 12월 대만전력공사가 발주하는 ESS(에너지저장장치) 프로젝트 입찰에 나선다.

19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최근 GE버노바·씨텔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대만전력공사의 1.2GWh(기가와트아워) 규모의 ESS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3사는 대만전력공사 입찰을 시작으로 대만과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중국에도 67.5GWh 규모의 생산거점을 두고 있지만 대만의 정보보안과 공급망 관련 정책을 고려하면 중국산 배터리를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만 ESS 시장 규모는 시장조사업체 디지타임즈(DIGITIMES) 기준 2025년 약 1.9GW(기가와트)에서 2030년 7~8GW로 약 4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 기업 GE버노바(GE)

미국 에너지 기업 GE버노바(GE Vernova), 대만 ESS 기업 씨텔(Seetel)과의 첫 공동 사업을 통해 비중국산 배터리 수요가 높은 대만 공공 ESS 시장을 공략하고 향후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시장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은 3사가 협력 관계를 구축한 이후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오는 12월 진행될 예정이며 결과는 내년 3월경 발표된다.

이에 대해 SK온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대만, 일본 등 글로벌 ESS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ESS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력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만 ESS 시장의 공급망 정책이다. 여기에 미국 GE버노바의 전력변환 기술과 대만 씨텔의 시스템 통합 역량을 결합해 대규모 ESS 프로젝트의 수주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교과서와 안경. 어려운 기사는 대개 용어에서 막힌다. (자료사진)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용어사전

AX, 제품과 업무에 인공지능을 실제로 붙여 성과를 내는 일

뜻과 쓰임을 공개 문서와 우리 기사로 확인한다

조경용 기자

용어사전 · 2026.11.19

'AX'는 제품과 업무에 인공지능을 실제로 붙여 성과를 내는 일이다. 퍼스트페이지가 보도한 기사 5건에서 이 말이 실제로 쓰인 문장을 찾아, 정의와 함께 놓았다.

AX는 제품과 업무에 인공지능을 실제로 붙여 성과를 내는 일이다.

DX가 디지털화라면 AX는 판단·추천·자동화에 AI를 쓰는 단계다.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 먼저 기록을 남기는 일이 필요하다.

퍼스트페이지 기사에서 이 말은 '테크·AI 트렌드', '경영·전략', '기자단 칼럼' 면에 나온다. 자체 용어사전은 이 말을 '테크' 분야로 묶는다.

기사 속 AX

퍼스트페이지가 11월 17일 보도한 「무안 농업 AX 시설 3곳, 데이터 연계 규격 설계, 9억8000만원 용역 발주」 기사는 "무안에 계획된 농업 AX 기반시설은 농업 AX 실증센터, AI 기반 생육지원 데이터센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3곳이다"라고 전했다. 같은 기사는 이어 "농업 AX에서는 센서와 제어장비가 만든 데이터를 어떻게 넘기고 누가 관리하는지가 사업비보다 큰 변수로 꼽힌다"라고 덧붙였다.

11월 17일 보도한 「기아·HD현대·SK AX, 신입 채용에 AI 역량 평가를 넣었다」 기사는 "HD현대는 AI 활용역량검사를, SK AX는 AI 리터러시 인증시험을 전형에 넣었다"라고 전했다. 같은 기사는 이어 "넥슨은 1시간짜리 AI 면접을 보고, 크래프톤은 AI 네이티브 인턴 100명 이상을 뽑았으며, KT는 AX 직무역량평가를 시행한다"라고 덧붙였다.

11월 17일 보도한 「빅테크 설비투자 7,400억 달러, 다음 병목은 전력선이다」 기사는 "기아는 업계 처음으로 AI 문제해결력 검증을 도입했고 HD현대와 SK AX도 AI 역량 평가를 넣었다"라고 전했다.

함께 쓰이는 말

이 말과 함께 읽는 용어로 '구독형 소프트웨어', 'PaaS', 'IaaS'가 있다. 같은 자리에서 쓰이지만 가리키는 것이 다르다.

'구독형 소프트웨어'는 설치 없이 웹에서 쓰고 매달 비용을 내는 소프트웨어이다. 작은 팀도 바로 도입할 수 있고, 회사는 반복 매출을 얻는다. 대신 쓰지 않아도 결제되는 구독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PaaS'는 앱을 만들고 돌리는 환경을 인터넷으로 빌려 쓰는 서비스이다. 서버·운영체제·데이터베이스까지 미리 준비돼 있어 개발자는 코드에 집중할 수 있다. IaaS보다 손이 덜 가고, SaaS보다 직접 만들 수 있는 범위가 넓다.

'IaaS'는 서버·저장공간·네트워크를 인터넷으로 빌려 쓰는 서비스이다. 컴퓨터를 사는 대신 필요할 때만 빌려 쓴다.



AX — 'AX'는 제품과 업무에 인공지능을 실제로 붙여 성과를 내는 일이다. 퍼스트페이지가 보도한 기사 5건에서 이 말이 실제로 쓰인 문장을 찾아, 정
그림=FIRSTPAGE

설정은 직접 해야 하지만, 그만큼 자유도가 높고 쓰는 만큼만 돈을 낸다.

이 글은 퍼스트페이지 자체 용어사전, 퍼스트페이지 보도 기사 「무안 농업 AX 시설 3곳, 데이터 연계 규격 설계, 9억8000만원 용역 발주」, 「기아·HD현대·SK AX, 신입 채용에 AI 역량 평가를 넣었다」, 「빅테크 설비투자 7,400억 달러, 다음 병목은 전력선이다」 등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

단신

용어사전

VC,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에 투자하는 전문 회사

'VC'는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에 투자하는 전문 회사이다. 뜻은 공개 문서로, 쓰임은 사전 풀이로 확인했다.

용어사전

GDP,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새로 만들어 낸 가치의 합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새로 만들어 낸 가치의 합이다. 퍼스트페이지가 보도한 기사 8건에서 이 말이 실제로 쓰인 문장을 찾아, 정의와 함께 놓았다.

광고
CONDERI EDU
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의
contact@conderi.com

FIRSTPAGE 지면 광고 문의 · contact@conderi.com

경제·금융 기초

신한투자증권, 고객 투자비용 가볍게 한 'Light 상품' 출시 4개월 만에 판매 5,000억 돌파

지난 8월 Light 채권이 출시 한 달 만에 1,000억원 판매를 기록한 데 이어, 채권과 주가연계증권(ELS)을 중심으로 판매 규모가 확대됐다.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18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은 고객 관점에서 투자 부담을 낮추고 상품 선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신한 Light 상품' 의 누적 판매액이 출시 약 4개월 만에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채권은 신용등급과 잔존만기 등 발행사의 신용도와 고객의 투자기간을 함께 고려해 선별했다. ELS는 기초자산과 손익구조, 조기상환 및 낙인 조건 등 상품의 구조적 특성과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라인업을 구성했다. 출시 당시 5종에서 현재 25종까지 라인업이 확대됐으며, 신규 출시 펀드의 Ae클래스에도 선취판매수수료 면제가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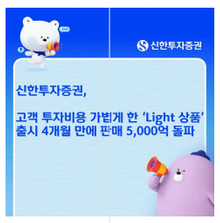
"신한투자증권 권영대 투자상품본부장은 "5,000억원 돌파라는 숫자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을 선별하고 구성한 방식에 고객들이 공감해 주셨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한투자증권은 '무엇을 더 팔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나은 투자 경험을 드릴까'를 먼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Light 채권

지난 8월 Light 채권이 출시 한 달 만에 1,000억원 판매를 기록한 데 이어, 채권과 주가연계증권(ELS)을 중심으로 판매 규모가 확대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상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낮춰 고객에게 돌아가는 채권 금리와 ELS 쿠폰 조건 등 혜택을 높이고, 각 상품의 특성에 맞춰 상품 선정 기준에도 고객관점을 반영했다.

펀드는 온라인 전용 비대면 공모펀드(Ae클래스)의 선취판매수수료를 없애 고객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낮췄다. 신한 SOL증권 앱에는 Light 상품 전용 페이지를 마련해 채권, ELS, 펀드 등 대상 상품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별 투자 메뉴에서도 필터로 대상 Light 상품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비교·선택할 수 있다.



스타트업투데이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스타트업투데이

경제·금융 기초

롯데바이오 인천 송도 1공장 준공, "연 매출 7000억·고용 800명 기대"

롯데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바이오캠퍼스가 가동에 들어갔다.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18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캠퍼스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제공롯데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바이오캠퍼스가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준공된 제1공장은 2024년 3월 착공했으며, 현재 75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12만ℓ를 생산할 수 있는 제1공장은 바이오의약품의 세포주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전 공정이 가능하며, 임상물질 생산을 위한 소규모 배양기 및 완제의약품 시설도 갖췄다. 현재 인천 송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주요 바이오 기업이 집적해 있으며, 인천의 제약·바이오 생산액은 7조 7000억원으로 국내 전체 생산액의 61.8%를 차지한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롯데바이오로직스 제1공장 준공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결실"이라며 "글로벌 생산 역량에 인천이 구축해 나갈 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 역량을 더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제1공장 가동에 따라 연간 7,0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바이오 생산·공정관리·품질관리(QC)·품질보증(QA) 및 설비 분야에서 800여 명의 인력이 종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 20만2285㎡ 부지에 총 36만ℓ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3기를 건립해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압도적인 생산 역량을 한 축으로 삼고, K-바이오 랩허브 건설과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해 연구개발(R&D) 및 기술사업화 역량을 또 다른 축으로 구축함으로써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경향신문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경향신문

경제·금융 기초

초격차 벌리는 바이오 세계 1위 송도, 롯데바이오 송도캠 준공

이번에 준공된 제1공장은 1만5000ℓ급 스테인리스 스틸 배양기 8기를 갖춘 12만 ℓ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이다.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18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캠퍼스 제1공장이 착공 2년 8개월 만에 준공돼 단일 도시 기준 바이오제약 생산능력 세계 1위인 인천 송도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캠퍼스 제1공장 준공식은 18일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에서 박찬대 인천시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 김종철 인천경제청장, 지역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 내 20만2285㎡ 용지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3개(총 36만ℓ)를 건립해 CDMO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준공된 제1공장은 1만5000ℓ급 스테인리스 스틸 배양기 8기를 갖춘 12만 ℓ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이다.

바이오의약품 세포주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가능하며, 임상물질 생산을 위한 소규모 배양기, 완제 의약품 시설도 갖췄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바이오는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이끌 차세대 산업"이라면서 "송도1공장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관련 기업 추가 투자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K-바이오 랩허브,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차이를 더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장 장남인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신 회장 장남인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는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생산 역량을 높이는 데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기여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면서 "품질과 기술, 신뢰를 바탕으로 CDMO(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매일경제

단신

경제·금융 기초

미미박스 '누니 립오일', 올해 글로벌 매출 747억 원 전망, 미국 타깃 1778개 매장 진출

미미박스는 뷰티 브랜드 누니의 립오일 제품이 올해 약 747억 원의 글로벌 리테일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금융 기초

하우스사라, 객실 데이터로 부동산업 유일 '2026 녹색금융 우수기업' 수상

플렉서블 리빙 운영사 하우스사라는 지난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한 시상식에서 녹색자산유동화증권(Green ABS) 발행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 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광고

FIRSTPAGE 지면 광고

청소년이 실제로 읽는 지면에 브랜드를 싣습니다 · contact@conderi.com

firstpage.conderi.com

기자단·칼럼

청소년 기자단이 쓴 관점과 제안

창업 스토리

'석자 얼음' 녹는다, 시진핑 만난 李, 한반도 평화·中시장 동시 공략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중국 측의 지지를 확인했다.

조경용 기자

창업 스토리 · 2026.11.18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의제는 한반도 문제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중국 측의 지지를 확인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후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가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라는 점과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평화 공존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앞서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방중 당시에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양 정상의 한반도 관련 논의는 지난 1월 회담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양 정상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위 실장은 "시 주석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며 "최근 북중 관계 동향을 설명하고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모두발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함께 노력해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양국은 식품안전 협력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최근 우리 단감의 중국 시장 진출이라는 성과도 나왔다. 2015년 12월 발효된 기존 FTA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문 앞에서 손님을 맞는 동네 카페 사장. 다시 오게 하는 비용이 새 손님을 부르는 비용보다 싸다. (자료사진)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창업 스토리

아산나눔재단, 비영리스타트업 9개 팀에 총상금 1억 원, 모스픽·사이트스페이스 대상 수상

아산나눔재단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비영리스타트업 콘퍼런스 2026'을 개최했다.

조경용 기자

창업 스토리 · 2026.11.18

약 3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9개 팀이 성과를 발표하고 총상금 1억 원을 놓고 경쟁했다.

아산나눔재단은 2021년부터 비영리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총 62개 기관의 80개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다. 올해 아산나눔재단의 비영리스타트업 콘퍼런스에서는 기술을 활용한 사회혁신 프로젝트 9개 팀이 성과를 공유하고 총상금 1억 원을 놓고 발표에 나섰다.

한가온 모스픽 대표는 “지난해 도전트랙에서 올해 성장트랙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고민을 알럼나이 팀들과 나눴고 큰 도움을 받았다”며 “모스픽 역시 다음 팀들에 도움을 나눌 수 있도록 더욱 성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임팩트 피칭에는 성장트랙 6개 팀과 도전트랙 3개 팀 등 총 9개 팀이 참여했다.

> “엄윤미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영리의 한계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어떤 상상력을 만나 어떤 사람과 문제에 연결되는 것”이라며 “6개월간 달려온 아산 비영리스타트업 팀들의 실험이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엄윤미)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엄윤미)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벤처스퀘어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벤처스퀘어

대강당에서 ‘비영리스타트업 콘퍼런스 2026(비스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나눔재단은 2021년부터 ‘아산 비영리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스콘은 아산나눔재단의 초기 비영리 조직 육성 프로그램 '아산 비영리스타트업'에 참여한 기관들이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하고 사회혁신 분야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행사다.

용어사전

PBR,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

정의에서 기사 속 문장까지 따라간다

조경용 기자

용어사전 · 2026.11.18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퍼스트페이지가 보도한 기사 2건에서 이 말이 실제로 쓰인 문장을 찾아, 정의와 함께 놓았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회사가 가진 재산에 비해 주가가 몇 배인지 보여 준다.

퍼스트페이지 기사에서 이 말은 ‘테크·AI 트렌드’ 면에 나온다. 자체 용어사전은 이 말을 ‘경제’ 분야로 묶는다.

이 말이 가리키는 것

한국어 위키백과의 ‘주가순자산비율’ 문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rice-to-book ratio, P/B ratio)는 주가를 BPS(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것이다”라고 적는다. 문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주가가 1주당 순자산의 몇 배로 매매되고 있는가를 표시하며 PER과 같이 주가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낸다.”

> “일반적으로 이 지표는 PER과 함께 사용되는데, 이는 주가순자산배율이 그 회사를 정적인 상태 즉 스토크(stock)면에서 보고 있는데 반하여 주가수익률은 동적인 상태 즉 플로(flow)면에서 보고 있으므로 두 가지 지표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 “다만 이 주가 순자산배율에도 주주 소유분이 장부가격에 의해 계산되고 있어 반드시 정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계산기준이 전기의 결산기가 된다는 등의 난점이 있다.”

지면에서 만난 P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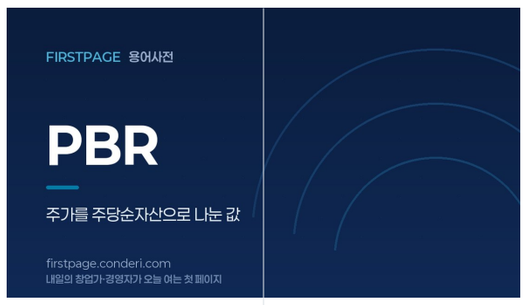
퍼스트페이지가 11월 17일 보도한 「매경이 전한 오늘의 지식: 저PBR 10곳 중 9곳, 수능장 와이파이 차단」 기사는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낮으면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 주가가 싸다는 뜻이다”라고 전했다. 같은 기사는 이어 “정부와 여당은 저PBR 기업 대주주에 대해 상속·증여 때 주식 평가액을 최소 30% 할증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읽을 말

이 말과 함께 읽는 용어로 ‘시가총액’, ‘배당’, ‘채권’이 있다. 같은 자리에서 쓰이지만 가리키는 것이 다르다.

‘시가총액’은 주가에 발행 주식 수를 곱한 회사의 시장 가치이다. 주가 1만 원인 회사가 100만 주를 발행했다면 시가총액은 100억 원이다. 회사 규모를 비교할 때 자주 쓰인다.

‘배당’은 회사가 번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이다.



PBR —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
그림=FIRSTPAGE

배당을 많이 하면 주주는 현금을 받지만, 회사에 남는 돈은 줄어든다. 성장 단계의 회사는 배당보다 재투자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채권’은 돈을 빌리며 언제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고 적은 증서이다. 발행한 곳이 약속을 지키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다.

이 글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주가순자산비율’ 문서, 퍼스트페이지 자체 용어사전, 퍼스트페이지 보도 기사 「매경이 전한 오늘의 지식: 저PBR 10곳 중 9곳, 수능장 와이파이 차단」 등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

단신

테크·AI 트렌드

딥엑스 AI 반도체 탑재한 대만 에이페이서 ‘바이클로’, 2027 대만 우수제품상 수상

딥엑스의 AI 반도체를 탑재한 대만 에이페이서의 엣지 AI 제품 ' 바이클로' 가 2027 대만 우수제품상을 수상했다.

테크·AI 트렌드

미국 30여개 주, '캐릭터닷AI' 매각 심사 강화 요구, 아동 대화 기록 쟁점

미국 30여개 주 정부가 아동의 자살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 AI 챗봇 서비스 ' 캐릭터닷AI(Character.AI)' 의 매각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광고
CONDERI EDU
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의
contact@conderi.com

FIRSTPAGE 지면 광고 문의 · contact@conderi.com